

#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여수만 르네상스 비전 선포

### 해양생태·웰니스·레저·녹색산업 5개 만별 23개 전략사업 추진 여수 미래 100년 이끌 초석 마련

여수를 둘러싼 5개 만(灣)을 중심으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상’이 공개됐다.

여수시는 지난 1일 여수 문화홀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선포식에서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미래해양도시 여수’를 내걸고 여수만의 부흥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 시장과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5개 만 인근 주민들은 선포식에 참석해 ‘여수만 르네상스’의 성공을 위한 뜻을 들었다.

여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치른 뒤 관광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1000만 관광객을 넘기며 교통 체증과 물가 상승,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겪어왔다. 여수시는 원도심과 돌산에 집중된 과잉 관광 문제를 해소하고 여수만의 특화전략 산



정기명 여수시장과 여수 5개 만(灣) 주민들이 여수만 부흥의 성공을 기원하는 뜻을 들고 있다.

업을 키우기 위해 ‘여수만 르네상스’ 연구역량을 펼쳐왔다. 또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여수만의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 유치에도 힘을 예정이다.

‘여수만 르네상스’는 여수반도를 둘러싼 5개 만을 기반으로 생태·환경 개발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을 세워 여수의 재도약과 부흥을 이끌기로 했다. 1개 읍, 6개 면, 20개 동 총 512.3km<sup>2</sup>에 달하는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1단계(3개년), 2026-2030년 2단계(5개년), 2031-2040년 3단계(10개년)에 걸쳐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 만든 ‘여수만 르네상스’는 여수 미래 백년대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상인 ‘섬과 바다

를 세우기 위해 ‘여수만 르네상스’ 연구역량을 펼쳐왔다. 또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여수만의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3) 유치에도 힘을 예정이다.

‘여수만 르네상스’는 여수반도를 둘러싼 5개 만을 기반으로 생태·환경 개발을 추진한다. 여수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을 세워 여수의 재도약과 부흥을 이끌기로 했다. 1개 읍, 6개 면, 20개 동 총 512.3km<sup>2</sup>에 달하는 여수시 전역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1단계(3개년), 2026-2030년 2단계(5개년), 2031-2040년 3단계(10개년)에 걸쳐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 만든 ‘여수만 르네상스’는 여수 미래 백년대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상인 ‘섬과 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확정... 조성 탄력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 조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 청신호가 켜졌다.

고흥군은 정부가 지난 28일 연 공공기관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자문회의에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단지’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단단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지역권에서는 처음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고흥군 봉래면 일원에 약 152만㎡(4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상반기까지 산단단지 계획을 수립한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포함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사업인 민간발사장,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조성사업도 모두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예타 면제 확정된 것에 대해 6만2000여 고흥군민, 70만 향우들과 환영한다”며 “이는 고흥군 역대 최대의 성과로,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광양시 4일~다음달 2일 아동 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광양시가 ‘아동 권리 정책제안 공모전’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

아동 권리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우른다.

광양시는 아동 권리를 알리고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전은 광양시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율주제로 진행된다. 광양에 사는 1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광양시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서와 정책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전자우편·방문 제출 등을 하면 된다.

광양시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등 6개 우수제안을 뽑을 예정이다.

우수작 선정자에게는 오는 9월 중 광양사랑상품권과 상장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061-797-2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택 광양시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아동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와 사업안을 직접 발굴하겠다”며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모든 아동이 자신들의 권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구례군 공중화장실 153곳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리할 ‘스스로해결단’이 출범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 구례군 디지털 기술로 153개 공중화장실 관리

### ‘스스로해결단’ 점검·감독 활동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로 구례 153개 공중화장실 위생을 관리하는 ‘스스로해결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구례군은 최근 공중화장실 관리 디지털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스스로해결단’이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스스로해결단’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자와 5개 읍면 이장단장 등 11명이 참여한다.

구례군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물인터넷과 QR 코드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디지털 전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모 선정으로 구례군은 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스스로해결단은 이날 출범식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논의했다.

구례군은 이날 중순부터 지역 공중화장실 153곳에 사물인터넷·QR코드 기기를 부착해 관리 상황을 감독할 예정이다. 화장실 이용자 수와 청소 상태, 비품 현황 등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스스로해결단은 공감e가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민간 기업, 공무원 등과 지역 현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상은 그 지역과 연관되는 만큼 공중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편리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스스로해결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별량면의 청년마을에서 진행된 2박 3일 농촌체험 행사에서 전국 각지 청년들이 농업 체험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순천 청년 농촌체험 330명 몰려 11대1 경쟁률

### 별량면서 2박 3일 ‘농촌 시그널’

순천시 별량면에서 2박 3일 진행된 농촌체험에 전국 330명의 청년이 몰려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순천시는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의 하나로 마련한 ‘농촌 시그널’ 행사가 지난달 말 2박 3일 일정으로 치러졌다고 2일 밝혔다.

청년 농업인 단체 ‘청순농부’ (대표 김근수)는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농촌 시그널’이라는 2박 3일 행사를 별량면에서 진행했다.

3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 이 행사에는 전국 각지 330명이 몰려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순천시는 마을 한 곳당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다른 지역 청년들이 순천 농촌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마을 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말 진행된 ‘농촌 시그널’은 농업을 체험하고 농촌의 고즈넉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다. 첫날에는 예비 교육과 바비큐 잔치를 열고, 이튿날에는 뜰모작업과 치킨·맥주 잔치, 모닥불 놀이를 벌였다. 마지막 날에는 순천의 대표 걷기 좋은 길인 남파랑길(화포 해변)을 걷고, 지역 미식 체험을 진행했다.

순천 청년마을 체험은 올해 상반기 상사면과 별량면에서 진행했으며, 하반기(8월)에는 별량면에서 ‘청년 한 달 살기’를 벌일 예정이다.

김근수 청순농부 대표는 “청년마을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농업 하기 좋은 순천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